

라니키바브 역사



라니키바브는서기 11세기에
세상을 떠난 왕을 기리는 기념물로
축조된 계단 우물은 실용적인 구조물인 동시에
종교적인 건축물로서 건설되었고,
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지하 사원 형태로 설계되었다.
주요 조각품의 수만 500점이 넘고,
여기에 1,000점이 넘는 소형 조각품까지 더해져
문학 작품의 장면들을 묘사한 경우도 많다.

라니키바브 역사



라니키바브는서기 11세기에
세상을 떠난 왕을 기리는 기념물로
축조된 계단 우물은 실용적인 구조물인 동시에
종교적인 건축물로서 건설되었고,
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지하 사원 형태로 설계되었다.
주요 조각품의 수만 500점이 넘고,
여기에 1,000점이 넘는 소형 조각품까지 더해져
문학 작품의 장면들을 묘사한 경우도 많다.